

민주 경선 문재인 캠프 ‘문전성시’

安, 김성곤 등 중도파 합류...李, 유승희·김병욱 승선

하차 선언 박원순·김부겸 지지자들 행선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선 캠프의 운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소속 의원과 유력 인사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캠프 소속 전·전향직 의원들의 숫자가 대선후보 경선의 현재 판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대세론을 반영하듯 가장 많은 의원이 몰리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에서는 ‘사이안’(shy 안·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안 지사 지지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도 최근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문 전 대표 측은 합류 인사들이 계속 늘면서 오히려 고민할 정도다. 의원급에게 취약할 캠프 직책은 한정돼 있지만 너무 많은 의원들이 와서 내부 정리가 어려울 정도로 전해진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호남의 경우 3선의 이춘석, 재선의 이계호 의원이 각각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효석 전 의원도 직간접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박병계 의원이나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해영 의원 등도 최근 문 전 대표의 간담회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문 전 대표를 돕고 있다. 여기에 ‘김근태계’ 민평연 소속의 유은혜 의원의 합류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 지사 측에도 차츰 의원들의 합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현재는 김종민·정재호·조승래 의원 등이 주축이지만, 비문(비문재

인) 진영에 마땅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안 지사를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합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 지사 측의 설명이다.

호남의 경우 서갑원 전 의원은 이미 안 지사를 돕고 있고 김성곤 전 의원은 조만간 안 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변재일 의원 등 비문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도 안 지사 측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비문진영의 한 인사는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해서, 흑시라도 ‘찍힐’ 것을 우려해 몸조심하며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 지사의 상승세가 더 이어지면 ‘눈치작전’을 끝내고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에도 현역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정성호·김영진·제윤경 의원 등은 초반부터 이 시장을 돕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상승세를 탔을 때는 ‘이재명계(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후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합류하는 인사의 수도 정체됐다.

그러나 최근 당내 경선구도가 3강으로 고착되면서 다시 새 인물들이 수혈되고 있다. 이날은 3선인 유승희 의원과,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초선 김병욱 의원이 이 시장 측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도 하차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의원을 지지하던 의원들을 포함,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의원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지경기자 ikpark@kwangju.co.kr



“직장인 애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아이에스씨(ISC)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월국회 개혁입법 통과되나

광주 온 바른정당 이종구 “선거연령 인하 등 상당부분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입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8일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상당 부분 개혁입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양석 원내대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기대선 전에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말고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전진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여야 간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2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합의를 기대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야권의 무기력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위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정책위의장은 “선거연령 인하문제 등 참정권 확대문제와 상법 개정안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문제 등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붕하 간 유승민 “노대통령도 막판 역전”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8일(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상당히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해 극적인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면서) 그때 극적인 경선 과정에 대해 생각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서 정책개발, 메시지, 연설문 작성 등으로 이회창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는 당시 본선 상대였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유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을 언급한 것은 자신 역시 현재는 지지율이 낮지만, ‘돌풍’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평가한다”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진작 해법을 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좀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노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은 유 의원은 바른정당 김부겸 의원의 ‘구원등판론’에 대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본인이 그리 결정하시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반항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새누리 새 당명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은 8일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새 강령 전문에서 ‘국민행복 국가’가 빠지고 ‘헌법가치’와 ‘국가안보’가 부각된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새 강령을 마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삼일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文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김상곤...총괄본부장 송영길

다음주 출마선언 앞두고 선대위 가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는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다음주 초 출마선언을 준비하는 등 대선 출정을 위한 캠프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울러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축으로 당내 영입 인선을 통한 캠프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출마 선언 이후 캠프의 공식 발족 시기를 조율 중이다.

‘3강 구도’의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선언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모드로 전환한 상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캠프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전문재인) 색채를 뺀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 전운철 전 감사위원장, 김진표 의

원, 5선 경력의 이미경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담’인 총괄본부장은 송영길 의원이 맡고 5명의 본부장이 포진한다.

조직본부장에는 노영민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 손혜원 의원, 정책본부장에 홍중학 의원, 전략본부장에 전병헌 전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캠프는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호남·대전충청 등 권역별로

전·현직 의원 등을 중심으로 중랑급 있는 책임자를 두고 경선을 준비한다.

문 전 대표의 캠프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의원이 그대로 맡고 송광석 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서실 부실장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변인은 공동체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경수 의원이 정식 대변인에 이름을 올리고 박광온·유은혜 의원도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선의 박 의원은 언론 지원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물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신임정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